

2023년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 시험 총평

조경국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동안 1차 시험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올해 경제학 시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평이하였으며 일부 혼동을 야기하는 몇개 선지 외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이한 나머지 변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수험생들이라면 점수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론별로 출제비중을 살펴보면 미시파트에서 20문제, 거시파트에서 18문제, 국제파트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째, 미시파트의 경우, 수요공급이론 3문제, 소비이론 2문제, 생산이론 1문제, 시장이론 7문제로서 미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파트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강의시간에 늘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인 미시 2,3,4,5장(조경국 경제학교재 기준)에서 미시 20문제 중 13문제, 65퍼센트가 출제되었습니다.

미시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초주요이론 중 소비-생산이론보다는 시장조직이론에서 무려 7문제가 편향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장조직파트가 미시경제학의 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좀더 기초가 되는 소비와 생산이론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비,생산이론을 다져 두지 않으면 시장조직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시파트에서 요소시장의 경우 소득분배문제를 포함해서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요소수요독점 문제가 이론형 말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생경제학은 기초적인 개념 정도만 숙지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평이하게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미시경제파트는 예년과 달리 정보경제학에서 2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슈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다른 하나는 정보재 파트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정보재는 불의타 문제였으나 사실 경제 및 일반상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시경제이론을 잘 모르더라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으며 당락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거시파트의 경우, 고전학파-케인즈 2문제, IS-LM 5문제, AD-AS 2문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2문제로서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파트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강의시간에 늘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인 거시 2,3,4,5장(조경국 경제학교재 기준)에서 거시 18문제 중 11문제, 61퍼센트가 출제되었습니다.

거시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른 파트에 비해 IS-LM모형에서 5문제나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IS-LM모형은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도출됨과 동시에 AD-AS모형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케인즈모형, IS-LM모형, AD-AS모형 3개의 파트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부 아쉽게도 테일러 준칙과 거시경제의 기초인 소득과 물가측정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발문과 선지에 약간 불명확한 점들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가 명확해서 답을 고르는데는 지장이 없었겠으나 일부 수험생의 경우 불명확한 선지로 인해서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문제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반드시 필터링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론의 경우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여전히 솔로우모형의 전형적인 계산문제가 주로 빈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성장론의 수리적 접근을 어려워해서 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일정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가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국제파트의 경우, 국제무역론 1문제, 국제금융론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문제 모두 너무나도 평이한 나머지 어찌보면 수준 미달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13년간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국제파트도 선볼리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분들께 두 가지 당부를 드리며 총평을 마칩니다.

모든 수험공부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경제학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과목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올해 시험을 통해서도 미시와 거시 모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2,3,4,5장(조경국 경제학교재 기준)에서 미시문제의 65퍼센트, 거시문제의 61퍼센트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파트를 먼저 정복하는 것이 면과락과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기초이론의 체계적인 이해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해없는 맹목적 암기와 알박한 스킬은 경제학 실력향상과 합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누구에게나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량도 매우 방대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전략적으로 일부 파트 예를 들면 경제성장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등을 소위 가성비가 안좋다는 이유로 공부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트는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모형만 숙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해당 파트는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매우 가성비가 좋은 파트이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